

3분기 가계여유통 58조원, 7조원 ↑ …대출 줄고 소비쿠폰 효과도

예금·펀드 등 운용…국내주식 팔고 해외주식·ETF 등 투자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2.47배…역대 최대

GDP 대비 가계부채 89.3%…"6·27대책·DSR강화 등에 6년만에 최저

지난해 3분기(7~9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 분기보다 대출은 줄고 소비쿠폰 등에 소득은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유통이 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2025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2분기(51조3천억원)보다 6조7천억원 늘었지만, 통계판제 이후 최대였던 1분기(92조9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 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유통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 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지출을 상회하는 소득 증가 등으로 가계·비영리법인 순자금 운용 규모가 전 분기보다 늘었다"며 "소득 증가에는 이전소득인 소비쿠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3분기 자금 운용 규모(78조8천억원)도 전 분기(76조9천억원)보다 약 2조원 불었다.

특히 금융기관 예치금이 34조5천억원에서 42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천억원)은 전 분기(17조9천억원)와 비슷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천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비거주자 발행주식은 2조8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3조원 늘었고, 투자펀드 지분도 8조8천억원에서 23조9천억원으로 급증하며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 지분에는 국내에서 발행한 해외주식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등도 포함된다. 가계가 3분기 조달한 자금은 모두 20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25조6천억원)보다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한 분기 사이 29조원에서 19조3천억원으로 감소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4조4천억원에서 11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89.3%로 집계됐다. 2분기(89.7%)보다 0.4%포인트(p) 떨어

어져 2019년 3분기 말(88.3%) 이후 가장 낮았다.

김 팀장은 "6·27 대책,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3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 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작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이 3분기 2.47배로 전분기(2.41배)보다 올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9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3조5천억원)와 비교해 16조원 급증했다.

설비투자 등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일반정부의 자금 운용도 2분기 2조7천억원 순조달 상태에서 3분기 5조9천억원 순운용으로 돌아섰다.

이현진 기자

합진규사장·태국 고속도로청장, 업무협약 체결

고속도로 설계·건설·운영·안전관리 지식 공유 및 인력·기술 교류



한국도로공사(사장 합진규)는 8일(목) 교통관제센터에서 태국 고속도로청 (EXAT)과 도로·교통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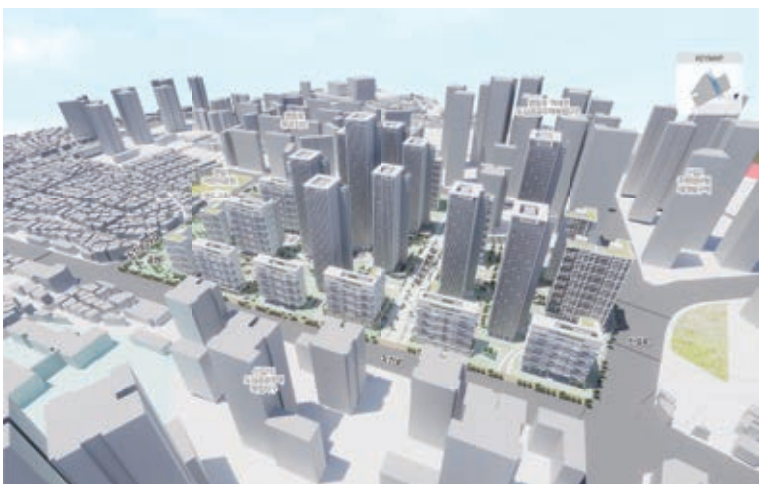
이번 양해각서는 양 기관 간 도로·교통 분야 상호 협력 및 인력·기술 교류를 강화코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 설계·건설·운영 및 안전관리 지식 공유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통행료수납시스템(ETCS) 관련 기술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류 등이다.

이영진 기자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완료

최고 높이 150m(45층), 2,500세대 공급 .. 사업 추진기간 단축해 속도 제고



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 7천㎡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적용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귀영 기자

한전-LS전선, 세계 최초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SFL-R) 사업화 계약 체결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으로 99%이상 정확도 고장 탐지

LS전선과 공동 사업화 추진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선점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사업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은 1월 6일(화) CES 2026 행사가 개최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전의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SFL-R(Smart Fault Locator-Real Time, 실시간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LS전선과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LS전선 구본규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전이 개발한 SFL-R 기술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을 통해 고장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현재 제주 #1 HVDC, 제주 #3 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중인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방식의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

다.

또한 기존 SFL 기술과 달리 대량 선로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상용화 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SFL-R 기술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입찰 시 한전의 SFL-R 기술이 탑재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출시와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FL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

SK하이닉스, CES 2026서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공개

HBM4 16단 첫선…AI 서버·데이터센터 겨냥한 메모리 포트폴리오 선보여

AI 시대 겨냥한 초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기술력 과시



AI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강점을 보인다.

회사는 미래를 위해 준비중인 AI 시스템용 메모리 솔루션 제품들이 AI 생태계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AI 시스템 데모존'도 마련했다.

이 곳에서 ▲특정 AI 칩 또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cHBM' ▲PIM 반도체 기반의 저비용·고효율 생성형 AI 용 가속기 카드 'AiMX' ▲메모리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CuD' ▲CXL메모리에 연산 기능을 통합한 'CMM-Ax'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 분석, 처리하는 데이터 인식형 'CSD' 등을 전시하고 시연한다.

이 중 cHBM(Custom HBM)의 경우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전시물도 마련했다. AI 시장의 경쟁 양상이 단순 성능에서 추론 효율성과 비용 최적화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GPU나 ASIC 기반의 AI 칩이 처리하던 일부 연산·제어 기능을 HBM 내부로 통합한 새로운 설계 방식을 시각화한 것이다.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 Chief Marketing Officer)은 "AI가 촉발한 혁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기술적 요구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당사는 차별화된 메모리 솔루션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우리銀, ‘우리WON기업’앱 MAU 17.8만 돌파... 계속 진화한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기업금융 특화 플랫폼 '우리WON기업'의 월간활성이용자(MAU)가 지난해 말 기준 17만 8천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024년 말 14만 7천 명 수준이던 MAU는 2025년 12월 말 기준 17만 8천 명을 넘어섬에 1년 만에 21% 이상의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기업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프로세스 개선, 비대면 특화 상품 라인업 확충,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마케팅 전개가 맞물린 결과로 꼽힌다.

먼저 우리은행은 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FAST' 대출상담 서비스와 개인사업자 대출 비대면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도입해 기업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었다.

이외 비대면 특화 상품 라인업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사장님 대환대출(6월) △우리

1년 만에 21% 급증, 뚜렷한 이용자 증가세 보이며 기업금융 플랫폼 경쟁력 입증

서비스 개선·비대면 대출 라인업 확대... 플랫폼 활성화 및 실사용자 유입 견인



사장님 신용대출(10월) △사장님 인테리어론(11월) 등을 연이어 탑재하며 비대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했다.

지난 12월 '우리WON기업 출시 5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며 로그인 고객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고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어 고객 유입을 이끌었다.

이러한 서비스·상품 고도화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고객의 정기적인 접속과 실사용을 유도하며 MAU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상생세를 이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우리WON기업 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I·UX 전면 개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전용관 신설, 특화 서비스 도입 등을 준비 중이며, 오는 2월과 4월에 순차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 디지털 금융 기능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우리은행은 기업고객의 경영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생산적 금융을 선도하고, 고객 가치 중심의 기업금융 플랫폼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